

김승연 한화 회장, 이글스 선수단·임직원 특별 격려품 전달

티본 스테이크·에어팟 맥스 등 선물
“더 높은 비상으로 정상 차지하자”

한화 김승연 회장이 한화이글스 선수단에 애정 어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화에 따르면 김 회장은 프로 야구 정규시즌 전반기 1위를 확정하며 선전중인 한화이글스 선수단과 임직원에게 특별 격려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1군 선수단은 물론 퓨처스리그 선수와 전 스태프에게 티본 스테이크를 선물하고 무더운 여름 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한화

강을 기원했다.

또 전력 분석과 휴식시 활용하도

록 경기 간 이동이 많은 1군 선수단과 스태프 80명에게 에어팟 맥스를 전

달했다.

김 회장은 “인고의 시간 끝에 이글스가 가장 높이 날고 있다”며 “후반기엔 더 높은 비상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의 이글스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시즌 9차례, 올 시즌 4차례 이글스 경기를 직관하며 팬들과 함께 응원했다. 지난해에는 1군 선수단 전원에게 이동식 스마트TV를 선물해 선전을 지원하기도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효성,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금 전달

효성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7000만원을 여성중앙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왼쪽)과 진경진 여성중앙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한라시멘트, ‘희망의 집짓기’ 후원

시멘트·드라이물탈 전량 지원

한라시멘트가 한국해비타트의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25년째 참여하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시멘트는 한국해비타트의 최장수 후원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자매회사인 아세아시멘트도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10일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서울 역삼동 아세아시멘트 본사에서 한국해비타트와 올해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쓰일 시멘트와 드라이물탈 전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의 집짓기 후원에는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이훈범 회장이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천안 성거읍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왼쪽 두번째)가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왼쪽 세번째)과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에서 진행한 헌정행사에 참여했었는데 한 입주민께서 소음 등에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게 됐다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면서 “시멘트로 만든 집이니 무너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라는 말에 다함께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네트웍스, 구성원 지원 프로그램 ‘눈길’

몸장 이벤트 등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SK네트웍스가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전사적 지원을 꾸준히 시행하며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에 나서고 있다.

SK네트웍스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여름맞이 몸장 이벤트’를 통해 인바디 점수 개선 폭이 큰 성과 우수자들을 선발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신청자를 모집해 6주간 2주 간격으로 인바디 변화를 측정해 성과 우수자들에게는 허리 마사지와 비타민 등 선물이 증정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구성원의 금연을 장려하고 있다. 금연 클리닉은 종로구 보건소와 연계

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자에게 금연 보조 물품을 제공하고 총 9회의 대면·비대면 상담과 금연 성공 시 소정의 선물도 지급한다.

SK네트웍스는 구성원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SK네트웍스는 구성원 본인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회의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 심리 영역은 물론 재무, 법률, 세무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전화나 화상 등 비대면 방식도 병행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SK네트웍스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 같은 구성원 대상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네이버, ‘해피빈’ 20주년… 누적 3000억 후원

모바일 서비스 등 기부문화 선도

네이버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지난 20년간 1200만명의 이용자가 3000억원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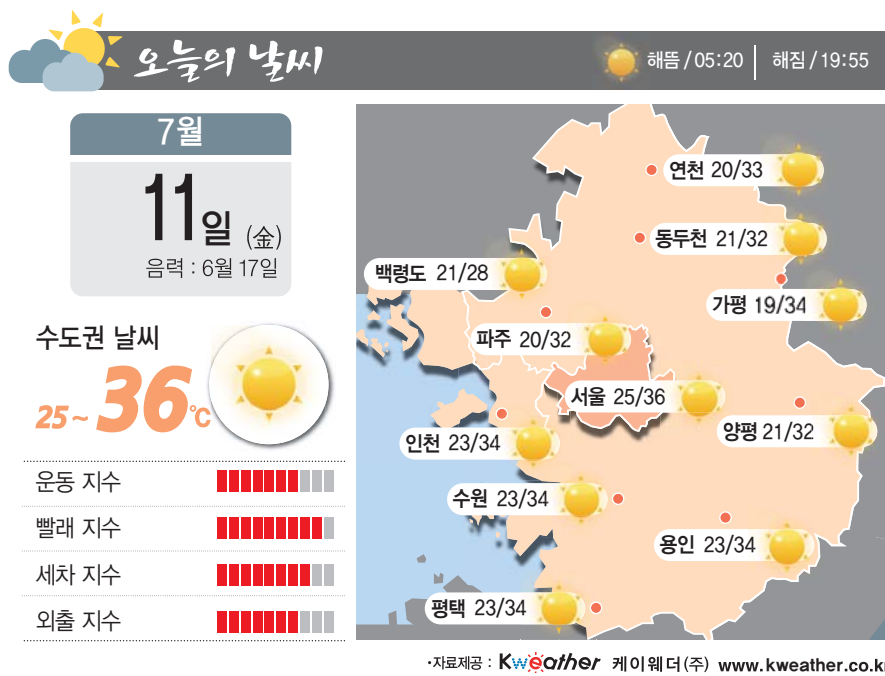
해피빈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기부 접근성을 높여왔다. 2014년 3월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며 기부의 문턱을 낮췄고, 그 결과 모바일 서비스 출시 이후 결제 기부자가 연평균 564% 이상 급증했다.

또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한 이후 2015년 대비 2016년 결제 기부 금액은 19% 늘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최근 3년 기준 해피빈의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약 4300원, 평균 기부 횟수는 5.17회로 집계됐다.

네이버 해피빈은 향후에도 지역, 청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기부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하이트진로, ‘CF 몬테레이’ 스폰서십 체결

중남미 시장에 진로 인지도 강화

하이트진로가 지난 1일 멕시코 명문 축구 구단 CF 몬테레이(Club de Fútbol Monterrey)와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멕시코 국민 스포츠인 축구와 결합한 현지 밀착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JINRO)’의 인지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CF 몬테레이는 멕시코 축구 1부 리그 소속의 전통 강호다. 홈구장인 에스 타디오 BBVA는 약 5만3500석 규모로 멕시코 내 네 번째로 큰 축구 경기장이

며, 평균 관중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스타디움 내 ▲상시 노출 가능한 고정 광고판 운영 ▲대형 스크린 및 TV 광고 ▲초대형 전광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등 다양한 현장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이번 CF 몬테레이와의 스폰서십은 현지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가별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K-소주의 세계화를 ‘진로(JINRO)’가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하림, ‘사랑의 맛데이’ 나눔 행사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맛데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상위계층 이웃 45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등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하림

부음

▲이광래(우미그룹 회장)씨 별세, 이석준(우미글로벌 부회장)·석일·혜영(우미건설 건축디자인실 실장)씨 부친상=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12일. 031-787-1503

▲최필동씨 별세, 이정자씨 남편상, 최영아·희수·수영씨 부친상, 조인순(마스텐투자운용 인프라부문장)·이건상씨 장인상=10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2일. 02-958-9552

▲김용수(전바이로메드·한솔인티큐브대표이사)씨 별세, 이혜림씨 남편상, 김승미(그랜드 하얏트 서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즈 과장)·송원(플레이리스트 콘텐츠기획제작팀장)씨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일. 02-3010-2000